

“조계종 총본산 성역불사 초석 놓을 것”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 1주년... 사업기조 발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 집행부가 남은 시간 동안 서울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자승 스님 임기 중 기공식 등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28일 34대 집행부 출범 1년을 맞아 직원 조례를 열고 향후 사업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총무 일정상 불참한 자승 스님 대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가장 먼저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정만 스님은 “총본산 조계사 성역화 사업은 제34대 집행부의 핵심 과제”라면서 “10년 이상 진행될 대형 불사이다. 적어도 임기 동안 첫 삽을 떠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 자승 스님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종단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10·27법난 교육기념관 건립 사업을 통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예산 문제 등이 있지만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지키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불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오는 11월 17일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총본산 성역화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종단 사부대

중의 의지를 결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 제도와 교구본사로의 총무 행정 이양 등도 핵심 과제를 강조했다. 정만 스님은 “승려복지 제도 정착을 위해 현실에 맞도록 종법을 개정하려 한다”면서 “이를 통해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최소한 삶의 부담을 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려복지·교구중심제 역점 추진 신심·공심·원력 총무행정 당부

이어 “총무행정의 교구본사 이양은 34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라면서 “아직 관련 종법 개정 등의 과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교구본사 역할 확대를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총무기관의 교역직·일반직 총무원들에 대한 당부도 이뤄졌다. 정만 스님은 “34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들이 원만히 회항하기 위해서는 일선 총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항상 강조

한대로 신심과 공심, 원력을 통한 총무행정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28일 제34대 집행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직원 조례를 개설했다.

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정만 스님이 밝혔듯이 향후 조계종은 총본산 성역화·승려복지·교구본사 총무행정 이양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구본사 총무행정 이양 사업의 경우 지난 5월 ‘중앙-교구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예산이 사업비로 편성됐다.

승려복지의 사실상 전면 수정됐다. 자승 스님은 올해 3월 승려복지를 전면 시행한

다고 밝혔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수행 연금을 폐지하고 국가 의료보험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토지 매입, 정부 예산 지원 등 굵직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 34대 집행부가 첫 삽을 뜨겠다고 밝힌 것은 사업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총무원이 11월 17일 총본산성역화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조례에는 자승과 세신 결사본부장 도법 스님과 중앙총무기관 부실장, 국장 스님, 재가 총무원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北 어린이 위해 추수했어요

민추본 26일 도리사서 통일쌀 수확... 도담도담 후원

10월 26일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 이하 민추본)와 구미 도리사(주지 묘장)가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후원을 위한 통일쌀 추수 행사를 진행했다.

“통일쌀 경작사업”은 사찰 소유의 땅에서 지역 농민 등과 함께 수확한 쌀을 북녘 동포에게 전달하는 사업. 지난 5월 도리사와 부산 마하사(주지 진호)에서 모내기한 통일쌀을 이제 수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중단된 상태기에 민추본은 통일쌀을 판매해 수익금 일부를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후원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추수는 구미 해평면사무소 직원들과 승

산타리클럽 회원, 세터민 새마을회, 도리사 신도회 30여명이 동참해 진행됐다.

묘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 모장으로 시작한 통일쌀 경작사업이 이렇게 추수행사로 회향할 수 있어서 정말 뜻 깊다”며 “도리사 통일쌀 후원기금으로 마련된 의약품이 북녘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평면 면사무소 양희규 면장 또한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은 영양결핍과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북녘의 아이들을 위해 영양식과 의약품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민추본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민추본은 10월 26일 구미 도리사에서 통일쌀 추수행사를 열었다.

“불교계 대표 사회공헌사업 자리매김 발원”

행복바라미 10월 25~26일 경찰교육원서 워크숍

불교계 사회공헌프로그램인 행복바라미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열렸다.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0월 25~26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2014 행복바라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행복바라미 캠페인에 동참한 단체와 기관, 봉사자를 비롯해 포교사단, 각 교구신도회 관계자 및 중앙임원 등이 참석해 행복바라미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워크숍 첫 날인 25일에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활동 모습을 담은 행복바라미의 영상물 상영 등이 있었다.

수석사 주지 지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행복바라미가 앞으로 더욱 인지도를

쌓아 불교계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찰과 지역에서도

앞장서 돕겠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네팔 카트만두 인근 카카나 지역으로 봉사할 떠나는 행복바라미 네팔 봉사단의 발대식도 이어졌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의료진과 모금에 참여했던 포교사단, 신도단체, 동국대학교 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해외봉사를 통해 행복바라미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중앙신도회는 “이번 워크숍은 전국 범위에서 펼쳐온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나는 기자



행복바라미 워크숍에는 행복바라미에 동참했던 중앙신도회 회장단 및 임원, 교구신도회를 비롯해 신도단체, 포교사단, 동국대 봉사단, 지역 복지관 관계자를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10.27법난 기념관 설립, 아픈 과거사 정리 사업”

10.27법난위, 조선비즈 인터넷만 ‘특혜 시비’ 보도에 즉각 반박 “조계사 일대는 법난의 상징 종단 귀속 자본 증식 아니다” 34주년 간담회·법회도 열려

조선일보 경제전문매체인 조선비즈가 10월 29일 인터넷을 통해 10.27법난 기념관 계획을 보도하면서 “조계종이 국민 세금으로 종로에 금싸라기 땅을 산다”고 지적한 데 대해 불교계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같은 날 홈페이지에 반박 입장문을 게시하고 법난기념관 건립은 “특별법에 근거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사업 특수성에 비추어 불 때 부지매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념관 부지소유권에 대해서는 “조계종 단 소유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재산처분의 제한이 있으므로 민간 자본증식을 위한 지



지난 10월 27일 열린 10.27법난 기념법회에서 명예회복 사업공헌자 중 한명인 원행 스님이 공로패를 받고있다.

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계사 일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10.27법난 당시 신군부의 군작전명이 조계사가 종로구 견지동 45번지에 위치한데서 착안한 ‘작계 45’였다”며 “(조계사 일대는) 10·27법난의 상징적 공간이자 한국 불교의 중심적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27법난 피해자인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도 해당 매체에 공식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문건을 10월 30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비즈는 “사업비 1687억원 중 770억원이 기념관 부지 매입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국가가 세금으로 조계사의 땅을 사주는 셈”이라고 특정 종교 혜택을 문제 삼고 나섰다.

조선비즈는 “정부가 국고를 지원해 민간에 토지를 매입해 준 전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안전결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의 말을 인용,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종교단체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용납될 수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보

도한 바 있다.

한편 34년 전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불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10.27 법난 피해자 간담회와 기념법회도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은 당시 상황을 전하며 “법난 당시 월정사 재무국장 소임을 맡았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수사관으로부터 개인 돈은 얼마나 모았느냐부터 수행자로서 참가 힘든 심한 모욕과 고문을 겪어야 했다”며 당시를 증언했다. 이어 “아직도 겨울만 되면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 진상 규명도 못하고 있다”며 “박제된 역사가 아닌 숨쉬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종단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법회에서는 10·27법난 명예회복 공헌자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진관 스님(종단협 불교인권위원장)과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 이근우(청담학원 문화센터 평생교육원장) 씨가 각각 선정돼 공로패를 수상했다. 배현진 기자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과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